

재미·먹거리 어우러진 골목형 상점가... “여름을 즐겨요”

■ ‘광산 골목상권 활력축제’ 가보니

가족·연인·친구 등 방문객들 다양한 콘텐츠 즐겨 음악공연·키즈풀·푸드트럭·천원맥주 ‘인기 만점’

“학교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하고 놀았습니다. 방학이 끝나는 게 아쉬워요.”

지난 23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첨단 1동 미관광장(쌍암동 666-11)에서 열린 ‘광산 골목상권 활력축제’(제2회 광산위터락 페스티벌) 현장. 첨단지구 골목형 상점가 회원들이 직접 콘텐츠 기획에 참여해 키즈풀, 베틀시장, 골목상점가 홍보, 공연, 먹거리가 어우러진 콘텐츠를 꾸몄다.

주무대인 시민휴식공간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재즈 밴드 빠기고와 무드리스트가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무등난타는 흥겨운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시선을 떼지 못했다.

축제장에 마련된 키즈풀은 더위를 식히려는 어린이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에어바운스 물놀이 기구를 타거나 물총을 쏘며 축제를 즐기는 아이들 모습에 부모들은 흐트란 미소를 지었다.

키즈풀 인근에 핫도그, 회오리감자, 팔

빙수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도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상생나눔 먹거리존에서는 ‘축제 수익금 전액은 수해 복구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기부된다’는 문구를 내걸고 막걸리, 음료, 아채전, 순대, 머릿고기 등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해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첨단1·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첨단 1동 통장단 등도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플라로이드 카메라(즉석 사진기)를 활용해 방문객에게 무료 사진 촬영·인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문한 음식을 받은 시민들은 테이블 석에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다.

특히 맥주존을 찾은 이들은 ‘천원맥주’ 2~3잔을 연거푸 들이키며 무더위를 날렸다.

김진형씨(22·월계동)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는 축제 안내문을 보고 왔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즐길 거리가 있어 흥미진진하다”며 “키즈풀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니 조카들 생각도 났



광주 광산구와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3일 첨단1동 미관광장에서 광산 골목상권 활력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키즈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다”고 말했다.

주무대 옆에 자리한 골목상권 부스에서는 광산구 직원과 골목형상점가 회원들이 디지털은누리상품권·광산사랑상품권,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를 홍보하며 상권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었다.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체험부스에서 터키 팽이 돌리기, 독수리 균형 맞추기, 페이스 페인팅 등을 하며 추억을 쌓았다.

‘박영국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 회장은 “첨단지구에서 잊지 못할 즐거운 경험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주민과 함께, 조화와

상생’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국 으뜸 골목형상점가로 성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박근혜 국회의원, 박병국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몽룡 광산구 골

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산 골목상권 활력 축제는 당초 7월 26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N-NEXUS

N넥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지니어의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연 구 & 계 획 통합영상관리, 지형 영상처리 솔루션, 재난·안전 솔루션

제 조 & 제 작 주·필터 단위 및 CCTV 시스템

E S S 시 스템 산업용 4K/8K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설계, 이미지 인체 분석, 모션 추적

설 계 & 자 문 유·무선망 컨설팅, 서버/네트워크, 영상관리·보존·재현/영상·영상처리 시스템

유 지 보 수 & 감 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 장 & 설 치 정보통신공사, 스마트시티 설계, 공학 ICT 분야 설계, ITS 설계, 열차무선 시스템, 핵심핵심사업자

TEL 062-719-1080-2

현장속으로 소방관 벌집 제거작업 동행 취재

“말벌과 사투...통풍 안 되는 보호복에 땀 범벅”

“계속되는 무더위에 말벌 수가 많아지고 활동도 왕성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꼭 119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난 21일 오전 9시 광주 동구 운영동 전통문화관.

전신을 감싸는 보호장구를 입고 뜨거운 햇볕 아래 새인당 지붕에 매달린 벌집을 제거하는 소방관들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이들은 광주 동부소방 용산119안전센터 소속 최홍준 소방위(47)와 서현동 소방교(26)다.

소방관 생활복 위에 착용한 상하의 보호복과 헬멧을 지퍼로 단단히 연결하고, 특수 재질의 두꺼운 장갑과 장화까지 착용한 탓에 마치 사우나와 다름 없다. 벌집 제거 스크래퍼, 원격퇴치기, 잠자리채 등 각종 장비는 덩어리다.

보호복은 작업 중 벌 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람이 통하지 않는 하얀 비닐로 이뤄져 있었다.

해당 장소는 전날 한 차례 제거 작업을 벌인 곳이다. 하지만 또다시 벌집이 생겨 재차 현장에 나선 것이다.

최홍준 소방위는 능숙하게 원격퇴치기를 활용해 새인당 처마에 해충제를 살포했고, 서현동 소방교는 주변을 통제하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잠시 후 등검은말벌이 수십여 마리가 나와 최소방위를 위협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말벌집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30여분 간 사투 끝에 말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관리원에게 2~3시간 주변 통제를 당부했다.

이후 119안전센터로 복귀하려는 순간, 이번에는 ‘선교동 너릿재갯길 정삼 공중화장실 인근 정자에 말벌들이 모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현장으로 향한 이들은 등산객의 안내에 따라 정자에 모여 있는 말벌을 확인했다. 10여분 간 처마 아래에 모여 있는 장수말벌을 향해 살충제를 살포했다.

학운동 주민 손모씨(69·여)는 “며칠

하루 최대 10여건 출동...헬멧·잠자리채 등 중무장
“벌쏘임 심할 경우 사망...안전 위해 119 신고 당부”



지난 21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소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최홍준 소방위의 서현동 소방교가 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전 말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수시로 벌집을 치워도 또다시 생겨나고, 등산객을 위협해 119에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소재동 한 아파트에서 단지에서 자리 잡은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신고 현장에는 2층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자리 잡은 말벌집 2개, 나뭇가지에 있는 말벌집 1개가 있었다. 최소방위와 서소방교는 보호복을 점검한 뒤 핸드볼 크기의 말벌집을 신속히 제거했다.

두 소방대원의 사례처럼 벌집 제거에 나서는 요원들의 체력 소모는 상당하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복만큼은 아니지만 말벌보호복 역시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장시간 야외작업을 하는 날에는 두통, 어지러움 등을 겪는다.

서소방교는 “울 들어 부쩍 벌집 제거 신고가 늘었다. 하루에 10번 출동한 적도 있다”면서 “임무를 마치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벌쏘임을 당하면 심할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119에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